



경주마들의 해변질주 8일(현지 시간) 독일 북부 쿡스하펜 인근 두넨에서 전통 2륜마차경주대회가 열리고 있다. 매년 여름 열리는 대회에는 3만여 관중이 몰려 경주마들이 흠뻑물을 튀기며 해변을 달리는 장관을 지켜본다. /연합뉴스

광주일고, 동향대결서 웃다

동성 꺾고 봉황기 16강 진출

광주일고가 봉황대기 광주 동성고와의 '동향대결'에서 8-6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했다. 광주일고는 9일 수원구장에서 열린 제 40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32강전에서 박종호의 역전 결승타에 힘입어 8-6 승리를 신고했다.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를 끝내고 지난 4일 귀국한 양팀의 대표선수들이 총출동했다. 광주일고는 에이스 유창식과 내야수 허일·백세웅을 전면에 포진시켰고, 동성고도 내야수 강경학과 외야수 문우람을 풀타자와 3번 타자에 배치했다.

2회 동성고가 먼저 점수를 뽑아냈다. 투수 겸 6번타자로 나선 이영기가 일고 선발 이정호를 상대로 우측 담장 넘기는 솔로포를 기록했다. 동성고는 2-1로 앞서 나가던 5회 문우람의 2루타를 포함해 5개의 안타를 묶어 4점을 뽑으며 6-1까지 달아났다. 하지만 6회초 광주일고가 백세웅의 2타점 3루타 등을 앞세워 3점을 따라 붙었다. 7회에는 광주일고 이현동의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면서 경기는 6-6 원점으로 돌아갔다. 광주일고는 8회 1사 1·2루에서 박종호의 좌전안타로 승부를 뒤집은 뒤 9회 유창식의 1타점 희생플라이로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9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0회 전국봉황기야구대회 32강전 광주일고와 동성고의 경기에서 광주일고 포수 이동건이 투수의 공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타자는 동성고 강경학. <한국일보 제공>

KIA '4위싸움' 롯데와 주말 빅매치



부상 윤석민·이용규 가세... 주중엔 한화 제물 승수쌍기

신·구 에이스를 앞세운 호랑이 군단이 독수리와 갈매기 사냥에 나선다. 지난주 3승 3패를 거두며 승률 높이기 위해 실패한 KIA 타이거즈가 청주주 가 한화 이글스와의 주중 3연전을 갖는다. 주말에는 4위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하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와 안방에서 빅 매치를 벌인다. 올 시즌 각각 11승3패와 8승5패로 상대전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두 팀과의 대결, 특히 한화전에서 '괴물' 류현진이 출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대진운은 좋다. KIA는 지난 주말 '제 2의 안방' 군산에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확인하고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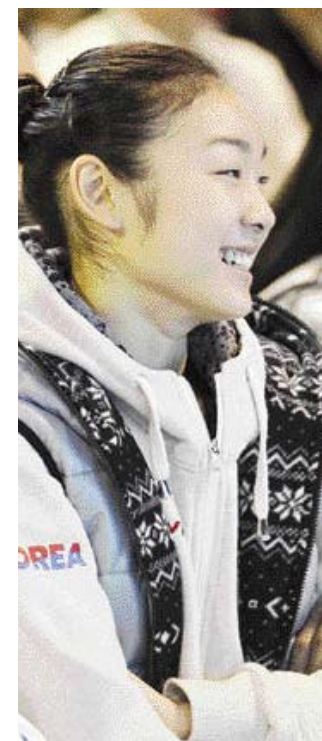
8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KIA는 9회말 김상현과 이현곤의 홈런 두 방으로 4점을 뽑아내는 등 짜릿한 추격전을 벌이며 한층 강해진 팀컬러를 선보였다. 하지만 마지막 한방은 여전히 부족했다. 이날 패배는 올 시즌에 기록한 18번째 1점차 패배, 그리고 8번째 연장패였다. 확고한 마무리 부재의 한계도 다시 한 번 노출했다. 지난 시즌 불펜 에이스 광정철이 계속된 부진으로 2군으로 내려갔고, 철벽 마무리로 위용을 과시했던 유동훈은 올 시즌 2.68의 방어율로 6번의 불펜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다. 불펜의 양축을 형성했던 두 선수의 부진으로 '신인 호랑이' 안영명과 손영민에게 부

담이 가중되면서 두 불펜조합의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불펜 전력이 흔들리면서 승리 쌓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KIA는 이번주 마운드에 천군 만마를 얻는다. 지난 6월18일 오른쪽 손가락 골절로 재활군에 머물렀던 에이스 윤석민이 한화와의 주중 3연전을 위해 원정 버스에 올랐다. 8월 두 차례 불펜피칭을 소화했던 윤석민은 7일 롯데와의 2군 경기에 선발로 나서 최종 점검을 받았다. 3과 3분의2 이닝을 소화한 윤석민은 17타자를 상대해 49개의 공을 뿌리며 5피안타 1사사구 1실점을 기록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5km. 실전등판에서 오케이 사인을 받은 윤석민

은 10일 엔트리에 등록된다. 윤석민은 일단 불펜에서 100% 전력을 만든 뒤 선발진에 재합류할 예정이다. 윤석민의 가세로 마운드 운용에도 한층 승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주 마운드에 돌아온 '에이스 오브 에이스' 이대진은 노련미를 앞세운 5이닝 무실점의 투구로 선발로데이션에 급한 불을 끄는 등 신·구 에이스의 복귀로 마운드가 한층 탄탄해졌다. 두산 마무리 이용찬의 불에 맞아 두 경기 선발 출장하지 못했던 이용규도 다시 그라운드에 나서 타선의 결정력에 힘을 보태게 된다. 지난달 29일 사직에서 홈런을 연거푸 쏘아올리며 1이닝 7타점의 기록까지 썼던 만큼 주말 광주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롯데와의 경기를 앞두고 단연 이용규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피겨퀸' 김연아 美 아이스쇼 무대

10월 2~3일 LA서



'피겨퀸' 김연아(20·고려대)가 오는 10월 처음으로 미국에서 아이스쇼 무대에 선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김연아가 10월2~3일 이틀 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리는 '올댓스케이프 LA' 아이스쇼에 출연한다고 9일 밝혔다. 김연아는 2007년 일본에서 열린 아이스쇼와 캐나다에서 열린 자신 갈라쇼에 참가한 적이 있지만 미국에서 아이스쇼 무대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올댓스포츠는 "한국의 토종 아이스쇼를 처음으로 미국에서 선보이는 기회이며, 스포츠와 김연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 때문에 LA를 첫 무대로 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LA를 방문한 김연아는 시청으로부터 명예 시민증을 전달받는 등 환대를 받았다. 또 스테이플스 센터는 지난 2009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려 김연아에게 첫 우승을 안겨준 장소라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아이스쇼의 출연진과 세부 프로그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올댓스포츠는 9일 초까지 출연진 구성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박태환 등 AG출전 수영대표 26명 확정

女 평형에선 전남연맹 정다래 선발



명예회복을 버리는 박태환(단국대·사진) 등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물살을 가를 수영 대표 선수 26명이 확정됐다. 대한수영연맹은 최근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어 오는 11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경쟁 24명(남자 13명, 여자 11명)과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2명 등 26명의 수영 대표 선수를 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다이빙과 수구 종목의 대표 선수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남자부에서는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200m, 400m, 1,500m 등 3관왕을 차지하며 대회 최우수선수에 뽑힌 박태

환을 비롯해 배영 100m와 200m 한국 기록 보유자인 박선관(한국체대)과 김지현(대구체육회), 평영 100m와 200m에서 한국 최고 기록을 가진 최규용(한국체대), 접영 최강자 정두희(서울시청) 등이 포함됐다. 여자부에서는 올해 첫 한국 신기록을 세운 여고생 함찬미(북원여고)를 비롯해 배영 100m 한국 기록을 갈아 치운 이주형(경남체육회)이 새로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평영에선 전남수영연맹 정다래가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내집같은 편안함

광주에는 금수장관광호텔이 있습니다.

© 금수장관광호텔 010-970-2211

- 1. 시설·서비스: 4성급 호텔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
- 2. 가격: 4성급 호텔 수준의 가격
- 3. 편의: 무료 주차, 무료 셔틀, 무료 인터넷, 무료 회의실, 무료 세탁, 무료 드라이클리닝, 무료 주차, 무료 셔틀, 무료 인터넷, 무료 회의실, 무료 세탁, 무료 드라이클리닝